

유럽 중소기업의 표준 참여 강화 -SMEST 2 프로젝트 착수

CENELEC, CEN, 오스트리아, 독일, 네덜란드 표준화기관, NORMAPME 공동으로



▲ 유럽 표준화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CENELEC, CEN 등이 중심이 되어 SMEST 2 프로젝트에 착수했다.

SMESTSM 중소기업 표준화 툴킷(SMEST 2)

프로젝트의 목표는 중소기업에 표준화 인식을 강화하고 표준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표준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데 있다.

SMEST 2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(EC)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. 이 프로젝트는 CENELEC과 CEN의 멤버들이 수행할 예정이며, EU차원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접근성 연구에 의한 결과에 따라 지침을 제공하고 실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. 이 프로젝트는 효율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. SMEST 1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표준화 툴킷을 개선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. 또한 국가 표준화기관과 중소기업 협회나 중소기업의 협력정도도 평가대상이다.

중소기업, 민간 분야 일자리의 55% 제공

중소기업은 유럽경제에 중심 역할을 한다. 그들은 전체 유럽기업의 95%를 차지하며 민간 분야 일자리 중 55%를 제공한다.

한편 CEN과 CENELEC은 2008년~2009년 'External Visibility and promotion project to assist SMEs in Europe'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. 본 프로젝트는 NEN(네덜란드)과 NEC(네덜란드), SIS(스웨덴), MSZT(헝가리), SIST(슬로베니아) 표준화기관에서 참여하였다. SMEST 프로젝트의 3대 주요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.

1. 지식시스템의 협력과 공유
2. 모범사례 지원/맞춤형 시장 접근
3. 국내 중소기업협회 지원

자세한 정보는 www.cen.eu/cen/Services/SMEhelpdesk/Activities/SMEST/Pages/default.aspx에서 알아볼 수 있다.